

社會의 病的 現象 (九)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歐洲의 東亞征服

歐洲人 中에 一定한 歷史觀으로 歐洲의 滅亡과 東亞의 興盛을 預言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近日 어느 書店에서든지 보시는 『오스발드 슈팽글러』의 『西域의 滅亡』이라는 二卷의 書冊은 固 固러케 預言합니다. 此所謂 隆盛할 東亞의 現勢는 엇더합니까? 우리 東亞의 現狀을 簡單히 말하면 歐洲에게 征服되얏고 또 只今도 되야가는 中입니다. 여기 征服이라함은 小亞細亞 諸國을 除한 外에 亞細亞 全部의 折半 以上을 占領한 白人의 領土만을 말함이 아니며, 또 싸라서 우리 東亞人 全部의 二分之一이 (四一九百萬) 白人의 統治下에 잇슴만 말함이 아니며, 또 白人이 우리 東亞의 到處에서 占有하는 經濟的 利益 卽 所謂 『平和的 侵入』으로 征服한 것만을 말함이 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征服이라 함은 固 歐洲文化의 勢力이 東亞에 侵入하여 우리 東亞의 五千年을 두고 生長한 文化의 根趾를 滅亡함을 特히 指示하여 말함입니다. 白人은 우리 東亞에 와서 現時에 發展되는 것을 觀察하고 一便으로 驚愕하며, 一面으로는 自己文化의 到處 勝利를 自覺, 自慢합니다. 該들은 當初에 東亞에 올 때에는 東亞에 固有한 文化 發展을 視察하고, 그 自己의 生活과 比較하기를 希望함인데 實地에 就하여 觀察하면 人種의 體格과 言語가 相異할 뿐이오, 其外에는 自己 殖民地에서 旅行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停車場에서 旅館에서 自己의 國語를 使用하며 自己에게 習慣된 衣食住로 生活하게됨을 觀하고 東亞까지가 歐洲文化의 勢力 下에 잇슴을 大段히 滿足하게 感覺합니다. 固 固대 우리는 自己의 固有한 文化가 滅亡이 되고 歐洲文化에게 征服을 當하게 된 것을 自誇하는 傾向이 잇습니다. 公平한 눈으로 觀察하면 固 固自誇할 것도 固 固지만은 한편으로 觀察하면 自己에게 固有한 것 이라고 固守만 하지 아니하고 남의 優勝함을 寬大히 認定하여 一般 時勢에 順應코자함이 우리 東洋人種의 發展 基礎인 有望한 性質이라 하겠스나, 그

性質의 有望 與否는 姑舍하고 現代 東亞가 歐洲 勢力 下에 絶對服從하는 것은 如何한 歷史家든지 否定키 難한 事實입니다. 五千年 以來로 우리에게 習慣된 君主專制를 腐敗한 것이라 하고 歐洲의 民主政體를 標準的 國體라함은 우리에게 公理的 眞理가 되얏습니다. 歐洲人の 社會制度和 生活方法이 勿論 完全無缺하다 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優勝한 것은 事實이라 하여 모든 建設的 活動의 標準으로 定함은 一般的 傾向입니다. 國體로부터 法制, 軍制, 學制, 營業, 交通, 其他 慈善, 救濟事業까지 歐洲文化의 影響을 맞지 아니한 것이 업고, 우리의 固有한 文化로 된 것은 顯微鏡으로도 차저 보기가 매우 困難합니다. 甚至於 우리의 道德觀念까지 그 根趾를 失하게 되야 東亞民族의 道德生活上 特色인 五倫까지도 混迷한 過去에 屬하게 되얏습니다. 우리의 宇宙觀까지 歐洲의 自然科學的 說明에 服從하게 되얏습니다.

東亞의 歐洲化되는 理由

그러면 이러한 一般的 傾向을 成한 原因이 何에 在한가을[를] 暫時 싱각 하면, 누구든지 勿論 答하기를 歐洲文化가 東亞의 그것보다 實際 生活이 論理的으로 適合하고 發展함에 優勝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想覺 갖해서는 이 解答이 一個 疑問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歐洲文化 그것을 참으로 그 內容까지를 善히 理解하고 또 感應하여 如斯히 優勝함을 覺하얏는지, 或은 歐洲人の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勢力이 우리보다 越等히 强하여 東亞民族의 存在 發展을 威脅함으로 그 自禦 方策上 歐洲文化를 倣效하는지 하는 疑問입니다. 우리의 大概는 兩便이 모다 올타 할 것입니다. 自禦方策에는 軍艦과 大砲를 製造함이 歐美人에게 對抗하는 第一 有效한 方法일 것입니다. 日本 國民이 此方面으로 先覺하여 前無하게 掠奪主義가 盛行하든 最近 五十年間에 能히 自守 自保하야온 것은 우리들의 仰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軍艦을 製造하려면 所用되는 것이 數多합니다. 物理, 化學, 機械學에 能通한 人才가 必要한즉 不可不 良好한 學校를 設備하야야 하겠으며, 또 原料品이 必要한즉 交通機關과 商事營業이 發達하야야 하겠으며, 또 그 軍艦을 善히 使用할 海軍도 養成하야야 하겠고, 이와 갓흔 巨大한 費用을 國民에게서 募集하자면 그 國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國會도 잇서야 하겠고, 國會가 잇스면 一定한 規則 卽 憲法도 잇서서 君主와 臣民의 權利 義務를 定限함이 또한 必要한 것이 되겟습니다.